

# 새벽별 아래 정각 이론 부처님처럼...

## 전국 사찰, 불기 2557년 성도재일 행사

음력 12월 8일 성도재일은 부처님오신 날과 출가재일, 열반재일과 더불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다. 싯타르다 태자가 6년간의 고행 끝에 정각을 이뤄 부처님이 되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성도재일은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인류에게 직접 전하는 출발점이며, 나아가 누구나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불자들은 성도재일 기러 법회와 철야 수행정진을 봉행한다.

불기 2557년 성도재일에도 다양한 법회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 사찰들은 성도재일 전날인 1월 18일과 성도재일인 1월 19일 부처님의 정각의 뜻을 기리

며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자체적인 수행 주간에 선포하고 정진과 기도에도 들어가는 사찰들도 있다.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 수행기간으로 삼고 소참법문과 참선실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참선과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등 철야용 맹정진과 유미죽 공양이 이뤄진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와 **인천불교회관**(주지 일지),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도 12~18일을 정진 주간으로 삼고 기도와 수행 정진을 진행하며, **수원 수원사**(주지 성관)는 13~18일 보현행원품 특강 및 참선실수를 연다.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경희)는

‘대구 성도절 기념법회’를 19일 오후 2시 대구시민체육관에서 봉행한다. 이날 성도절 기념법회는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의 법어를 비롯해 장학금 전달, 육법공양, 법성도 요강 등이 진행된다. 또한 미국 햄프셔대 교수 해빈 스님의 힐링콘서트도 열린다.

### 18~19일 절마다 철야정진

#### 일주일 정진 주간 수행

#### 자체 뮤지컬공연도 눈길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성린)는 20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신화국제문화관에서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문화

예술제는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의 초청법문과 승무 공연, 신명풍무악, 청림회 합창단의 공연이 선보여 진다.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는 18, 19일 양일에 걸쳐 성도재일 법회를 봉행한다. 18일은 학생회와 뮤지컬 보현행원 공연을 비롯해 행복을 발원하는 인등기도, 신행수기 발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19일에는 요가와 참선, 예불이 명상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범어사와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3일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성도재일 기념 법회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만)도 14일 오후 2시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성도절 연합법회를 열고 문화행사와 자비나눔 쌀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종일 기자**

## 장경사, 점유권 향소심도 승소

### 서울고법 국가 향소 기각

국유지를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찰소유자가 된다는 법원 향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김용석)는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 장경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향소심에서 1심에 이어 “피고인 국가의 향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965년 장경사는 현재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해 현대, 9층석탑, 대웅전 등을 건립해 사용해 왔지만 1988년 토지 1필지가 연유를 알 수 없이 국가 소유의 보존등기가 됐다. 이후 국가는 사찰의 토지 점유 및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지난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경사에 1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송소로 이어졌다.

장경사는 지난 2012년 7월 열린 1심 판결에 이어 이날 향소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를 확보하고 수행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경사 주지 경우스님은 “1심과 2심 소송에서 예부터 사찰이 존재해왔던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어 기쁘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도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전통사찰에 좋은 판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 조계종 의식개혁 키워드는 ‘구세대비’

### 결사추진본부, 범어사에서 좌담회

조계종이 자비로 세상을 구한다는 ‘구세대비(救世大悲)’의 실천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을 발전시켜나간다는 의식개혁의 큰 틀을 마련했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 자문위원회 의식개혁소위원회(이하 의식개혁소위원회)는 지난 8~9일 부산 범어사 주지실에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위한 제1차 열린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선·교·울을 대표해 고우 스님(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무비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 지안 스님(은혜사 승가대학원장), 성우 스님(계단위원장)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우 스님, 도법 스님, 수불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식개혁안 모색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종일관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치열하고 진솔한 토론이 이어졌다.

고우 스님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지침서로 ‘중도사상’을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도란 ‘나’라는 집착이 없는 개념이며, 양극단을 벗어난 개념으로 계층간의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전반의 갈등을 풀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무비 스님은 “아무리 좋은 사상도 실천이 없으면 말놀이로 남는다. 한국불교가 달라지려면 시대에 맞는 불교개혁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부처님처럼 만들어 섬기는 ‘인불(人佛)사상’이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는 1월 8일부터 9일까지 범어사에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 고우, 무비, 지안 스님 등 선·교·울 대강백들 참여 人佛 사상 바탕으로 한 대승불교 정신 회복 강조

라며 “인불사상의 실천이 바로 구세대비(救世大悲)이며, 그 한 예로 스승과 제자, 스님과 신도가 서로 맞닿음으로 승속을 차별하지 않는 문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법 스님은 “깨달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깨달음의 병에 걸려 있어 실제 삶과 직결되지 못한 점이 많다. 실천이 없으면 중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처럼 아는 불교가 일반 사회에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며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와 사람

이 부처라는 인불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세대비행의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로 이번 좌담회에 종단은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며 “의식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좌담회를 잘 마무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사추진본부는 1차 좌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식 개혁 총론을 만들어 동안 해체 후인 3월 경 자문위원회 회의에 공식 상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바람직한 불교관과 실천론이 정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종단의 주요소임자와 중도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열린다

###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25일 4기 강좌 개최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1월 25일 저녁 6시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4기 강좌는 최근 사회적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맞춰 현장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불교계 유무형의 자산 활용법과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된다. 강의시간은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이며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총 12강좌에 수강료는 20만 원이며 참가신청은 1월 8일부

터 메일이나 방문신청 가능하다. 수강인원은 약 40명이다.

한편, 2012년 2·3기 아카데미 수료생 중 (주)한지수의, (주)행복한올타리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마치고 12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2012년 11월 14일 불교사회적기업네트워크 데이 행사에서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불자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찬영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불교계 사회적기업의 장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위안부 문제 해법, 스님 고견 듣고파”

### 美하원 혼다 의원, 8일 자승 스님 예방

2007년 미국 의회에서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불교계를 공식 방문했다.

혼다 의원은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위안부 문제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여러 어려움이 많음에도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하는 것에 감동을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혼다 의원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도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성노예라고 정확한 표현을 써야한다고 말하는 등 관심이 많다. 일본 아베 정부도 그런 인식과 실천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한국 스님들의 여러 고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혼다 의원은 미국 대사관 브라이언 브루하우스 서기관과 함께 동행했으며, 종단에서는 사회부장 법광 사서실장 심경,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종일 기자**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 의원은 1월 8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자승 스님이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특수교육기관

#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인모집 요강

“천년의 맥, 수록재를 전승하는 전통불교의식의 도량”에서 의식의 올바른 선행을 위해 다양한 학과목을 마련, 기본적인 불공식에서 수록재에 이르기까지 여법한 의식집전을 실천하기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내용 ♣**

- ① 불전기본의식 (예불, 불공, 시식, 천도재 등)
- ② 전통의례 (어산, 작법 등)
- ③ 포교의례 (한글의례, 불교의식장단 등)
- ④ 수록재연구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 입학자격

- 전문과정 : 대한불교조계종 비구, 비구니 2013년 구족계 수지 예정인 사미, 사미니도 지원 가능
- 연구과정 : 본 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불교의식 및 문화 관련 학과 사회 대학 졸업자

■ 입학정원

- 전문과정 : 00명, 2년제
- 연구과정 : 00명, 3년제

■ 모집기간 : 2013년 1월 30일(수)까지

■ 면접(서류전형합격자) : 2013년 2월 6일 오후2시 (준비물: 가사, 장삼)

■ 합격자발표 : 2013년 2월 7일 이후 ~ 개별통지

■ 합격자등록 : 2013년 2월 12일 ~ 2월 22일

■ 개강예정일 : 2013년 3월 5일(화), 주 1회 등교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면접

■ 지원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 ② 성적증명서
- ③ 수행이력서
- ④ 자기소개서
- ⑤ 대한불교조계종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동주 원명

문의·접수처 (02)2658-3200

팩스 : 02-2063-3344 H.P 010-6424-3436 (교무스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226번지 (양천로 49길 56-12) 흥원사 내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 교학처

www.kbtca.or.kr